



사진 동호회 '사진이 좋아' 회원들은 카메라를 통해 아름다운 자연과 사람들 그리고 추억을 담고 있다.



# 찰칵! 찰칵! 추억을 찍어요

## 사진 조아

“그 노래를 연주해주게”

50년 전의 추억을 거슬러 간 백발의 사업가가 감미롭지만 지독하게 우울한 피아노 선율을 들으며 부다페스트의 작은 레스토랑을 찬찬히 둘러본다. 그리고 피아노 위에 놓인 여인의 사진과 눈이 마주친 노인은 이내 가슴을 쥐어뜯으며 쓰러진다. 영화 글루미 선데이의 첫 장면이다.

영화는 이내 사진 속에 멈춰있는 2차 세계대전이라는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진이 추억을 잇는 매개체로 등장한 이 영화에는 독일에서 만든 소형 카메라가 등장해 사진 매니아들의 눈길을 끌기도 한다.

‘시간은 가도 사진은 남는다’고 했던가? 시간과 추억을 담기 위해 큼직한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길을 걷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카메라가 보편화 되면서 필름 대신 반도체로 사진을 찍는 카메라를 의미하는 ‘DSLR (Digital Single Lens Reflex)’이라는 말도 익숙한 용어가 됐다.

### 한달 3장 사진 올리기 등 '333 원칙'

사진이 좋아 모인 사람들이 있다. 카메라를 벗삼아 좋은 사람들 멋진 풍경을 찾아다니는 사진 동호회 '사진이 좋아' (<http://dub.cyworld.com/sajinzoa>) 회원들이 그 주인공이다.

하루에 올릴 수 있는 사진은 3장, 한 달에 3장 이상의 사진 포스팅, 3개월에 한 번은 모임 참석하기, '333 원칙'을 내세운 동호회의 온라인 회원수는 240여명, 정기출사와 모임에 참석하는 적극적인 회원은 30여명이 된다.

운영자 김화선(여·31)씨는 "333 원칙"을 통해 적극적인 동호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사진에 대한 열정으로 사진을 감상하기 위해 동호회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적극적으로 함께 현장에도 나가고 친목을 다질 수 있도록 '333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는 김 씨지만 근사하고 비싼 카메라가 동호회 활동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고 말했다.

“좋은 카메라가 있다고 좋은 사진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는 이의 감성에 따라 똑같은 풍경도 다르게 찍힐 수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똑딱이 카메라를 가지고도 근사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또 동호회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와 다른 관점을 보고 생각하면서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 열성 회원 30여명 카메라 벗 삼아 친목

회원들은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 계절별로 꽃과 단풍을 쫓아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출사를 나간다. 시간이 맞는 회원들끼리 비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기도 한다.

회원들이 꼽는 사진의 매력은 지나가는 시간과 추억을 사진으로 담아 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인(32) 씨는 꼬태어날 아이의 사진 찍을 생각이 마음에 설렌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카메라 장비를 팔았었는데 아내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아기의 소중한 시간을 사진으로 남겨줄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사진속에 추억을 담을 수 있고 동영상과 달리 사진 하나를 놓고 사람들과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에 회상할 수 있다는 것이 사진의 매력입니다. 좋은 사진을 찍을 때마다 보물을 찾은 것 같은 희열도 느낍니다.”

김승호(34)씨는 사진을 '표현'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로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사진을 통해 생각과 다양한 감성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해마다 찍은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 기록을 남기기도 하고 지인들에게 사진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김 씨는 사진은 부지런함이 필요한 취미생활이라고 말한

다. “풍경 사진을 좋아하는 데 만족할 만한 사진을 얻기 위해 같은 곳을 수차례 찾아가 기다리면서 인내심을 배우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알고 도시에서 벗어나 탁 트인 풍경속에서 스트레스도 풀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박금숙(여·30)씨는 사진 동호회 활동을 통해 인간관계도 더욱 좋아졌다고 말한다.

“다양한 사람들과 폭넓은 인간관계도 형성할 수 있고, 제 사진에 대한 평가도 받고 쉽게 카메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을 보기 위해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는 등 자기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 수준급 회원 많아 초보자들 이룬 교육도

박씨는 또 “동호회 활동을 통해 최소비용으로 좋은 여행지도 찾아다닐 수 있다”고 한다.

사진이 좋은 아마추어들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사진 공부를 하고 전문적인 활동을 했던 회원들도 있다.

스튜디오 작가로 활동했던 이우연(29)씨는 부운영자를 맡아 회원들이 쉽게 사진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씨는 “수준급 실력을 갖춘 회원들이 많아 쉽게 사진 공부도 할 수 있다”며

“독학은 한계가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동호회 활동을 통해 작동법과 구도 등을 접하는 게 사진이 빨리 늘 수 있는 방법이다”고 말한다. 회원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이 씨지만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배움의 기회도 얻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가깝고 편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헌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선암부모와 당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십니까?

1. 선암부모의 묘지 관리: 선암부모의 묘지는 무등산 문헌정사 극락전 남골당에 있습니다. 묘지 관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본 정사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당선의 묘지 관리: 당선의 묘지는 무등산 문헌정사 극락전 남골당에 있습니다. 묘지 관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본 정사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선암부모와 당선의 묘지 관리: 선암부모와 당선의 묘지를 함께 관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 정사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220-1234

**광주 전남 기능장학** **大山프리모닝네기발**

타사제품 보상판매 **프리모닝네기발** **HAVER**

**가발**

최슬림!!

귀하의 불위와 염려를 놓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문의: 02-220-1234